

(다)는 시 감상론을 제시한 문학 이론 글이다. (다)는 시가 자아(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과 세계(현실)에 대응하는 자아의 대답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시 쓰기' 그 자체는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회고적 고찰이며, 시의 본질적인 기능은 그 고찰로 빛은 세계를 시를 통해 전달하며 자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시인은 '시 쓰기'를 통해 시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또 시인 자신이 가꿔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찰한다.

20. ③

③ (가)에서는 '노래'를, (나)에서는 '묘비'를 생명력 있는 존재로 묘사하여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위해 '건너가거나', '곳곳이 건디는' 등의 의지를 지닌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이 묘비는 살아 남아 / ~ /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에서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 '묘비'를 두고 '역사'와 '시인'의 마비가 일어나는 상황에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결을 고려할 때 '귀중한 사료'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귀중하게 여겨질 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편, (가)의 화자는 '노래'가 가혹하게 죽는 모습을 생각하며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인 태도로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가)는 화자가 인식한 현실의 상황을 그와 반대되는 언어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어적 어조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1. ④

[A]는 시가 반영하는 두 가지 현실에 대한 단락이다.

④ '밤'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4연에서 '눈물', '조상'과 같은 비극적인 느낌의 시어를 제시한 것은, '밤'으로 반영된 일상적 현실이 화자에게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⑤ '밤'은 가혹한 일상적 현실이 반영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옛일'을 '무지개'보다도 선명하게 환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집조차 없다는 못 잇을 계집애'의 처지에 감응하여 흘러간 화자의 '노래'가 사실은 '밤'의 배경을 거치며 건너간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 '밤'은 가혹한 일상적 현실이면서 그러한 세계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의지 또는 소망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⑤

(다)에 따르면 (가), (나)는 모두 '시에 대한 시 쓰기'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비춰보면 (가), (나)에서 시는 외부 현실이 아닌 '시 안의 시'에서 드러난 세계를 반영한다. 선택지에서는 (가)에서 '시 안의 시'로 표상된 것으로 '노래'를 제시했고, (나)에서는 '묘비명'을 제시했다.

⑤ (나)에서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간 어떤 이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시가 반영하는 '시 안의 시'가 '묘비명'이라면, 시인이 묘비명에 대하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 평가한 대목은 일상적 현실로 나타난 '시 안의 시'에 대응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의 관점에서 부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재인 것이다.